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교육



나눔을 위한 배움

우리는 세계시민

중등 편

KOICA
ODA교육원
International Development Education Academy

KCOE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나눔을 위한 배움

우리는 세계시민

증편

나눔을 위한 배움
우리는 세계시민 - 중등 편

공동 발행

KOICA ODA 교육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18

031-740-0500

idea.koica.go.kr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26-7 2층

02-2279-1704-6

www.ngokcoc.or.kr

기획 편집 | 강규원(KOICA ODA 교육원), 이지연(KCOC)

집필연구진 | 고아라(동광초), 고영주(기아대책), 김영미(문산여고), 성은경, 홍지영

자문 | 송진호 총장(울산 YMCA), 신재은 부장(KCOC), 이대훈 교수(성공회대), 이성훈 센터장(KCOC 정책센터)

인쇄일 | 2013년 10월 1일

발행일 | 2013년 10월 1일

목차

1부

한눈에 보는 개발교육 _____ 05

개발교육의 정의
교육 목표
접근 방법
교수 방법
주요 개념

2부

즐거운 개발교육 _____ 13

교안 활용 가이드
[1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2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3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요
[4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부록

개발교육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 _____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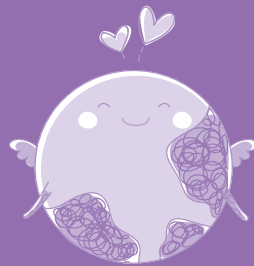
선택 활동
자주 묻는 질문
교안 활용을 위한 교보재



우리는 세계시민

1부

한눈에 보는 개발교육



1부

한눈에 보는 개발교육

개발교육의 정의

개발교육이란

국제개발협력교육(이하 개발교육)이란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세계시민 사회의 주체이자 구성원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가 겪는 문제, 국제개발에 대한 학습, 나라 간 상호의존성에 대한 학습,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방안 모색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교육에서는 특히 인권, 다양성의 존중, 나눔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공동체의식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세계시민이란

세계시민은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세계시민은

- 지구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상호의존성에 대해 이해합니다.
- 빈곤, 불평등, 교육, 사회정의, 물과 식량의 부족, 재난, 갈등, 평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 지구촌 문제를 비판적 사고를 통한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집니다.
- 편견 없는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육 목표

첫째, 아동, 청소년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소양을 기릅니다. 또한 미래에 국제사회 진출 및 ODA 전문가로서 활약하도록 합니다.

둘째, 지구촌 문제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동 분야에 대한 기본지식을 강화합니다.

셋째, 사회정의와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다양성, 상호의존성 등 개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합니다. 이로써 비판적 사고와 균형 잡힌 관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합니다.

접근 방법

세계적(global) 수준에서 지역적(local) 수준까지

개발교육의 출발은 지역사회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을 갖는 것입니다. 동시에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 이슈의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이 해당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지구촌이라는 것을 학습자들이 느끼도록 합니다.

통합적 관점과 다양한 접근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 파악도 중요하지만 각 문제들 간의 상호연계성 및 영향에 대해 균형 있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슈를 인권, 환경, 성평등, 빈곤 등 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은 편의상 그 문제를 단순화시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각 원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제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훈련하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인종, 종교, 지역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판적 시각과 창의적 사고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단순히 현상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 불평등, 환경, 성차별, 교육 등의 이슈에 대한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보다 넓은 맥락에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비판적 시각과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적극적 참여

지구촌 문제에 관해 방관자의 입장이 아닌 세계시민으로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구촌 저편의 사람들에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아무 의미도, 영향도 없는지,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과 자신이 속한 지역, 국가와 지구촌 전체의 변화를 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협동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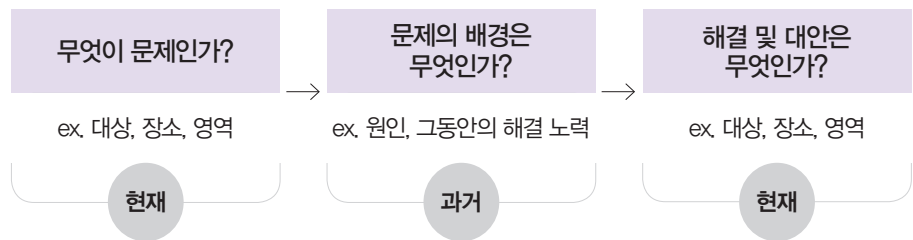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은 모든 개발 주체가 협력하여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교육 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이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 시, 학습자들이 협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합니다.

문제에 기반한 학습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이 공동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제시합니다.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동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익히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도록 합니다.

대화에 의한 학습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구촌 문제의 절대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눔으로써 이슈에 대한 통합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 특히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도록 합니다.



주요 개념

상호의존성과 다양성

상호의존성

교통과 정보통신의 급격한 발달로 우리는 세계화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미국 농부가 재배한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고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운동화를 신고 중동에서 수입한 기름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이렇듯 세계화는 사소한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처럼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세계 모든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문화,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황사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며,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전 세계에서 동시에 개봉됩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나 전쟁 등이 일어나면 곧 이어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호의존성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다양성

세계화로 인해 지구촌의 여러 이웃이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떠나 어느 때보다 서로에게 가까워졌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제개발협력의 출발점은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존중입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인종과 종교,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배경, 언어·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복이심일 아올북

인권

‘우리’라는 공동체의 범위가 지역사회에서 국가를 거쳐 지구촌으로 확대되면서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권리가 인종, 성별, 지역적 특성, 종교, 경제적 어려움, 정치체제, 환경 등의 이유로 침해되는 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권리가 박탈된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세계시민은 한 발 더 나아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찾아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는 정보 발전의 권리(The Right to Development)

1986년 UN은 발전의 권리에 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을 채택하였습니다. UN은 이를 통해 발전의 권리를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을 누리고 기여하고 참여할 자격이 있음이 인정되기에, 그 안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권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본 선언은 시민들의 발전에 대한 권리를 공포함으로써 발전의 주체인 시민이 그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 donga.com

빈곤

“빈곤은 무력화와 배제의 결과이다.” <UN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

“빈곤은 권력 부재의 상태, 즉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요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거부당한 상태이다.” <옥스팜>

사람들은 흔히 빈곤을 소득이나 필요한 물질이 부족한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빈곤은 그 원인이 대부분 지역, 사회,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인간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며 한 국가 내의 혹은 국가 간의 불평등한 정치사회 구조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의 정당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고 정의로운 사회 구조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빈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빈곤은 ‘소득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최저생계비는 1인당 하루 1.25달러입니다(세계은행, 2008년 기준).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북반구의 부국들에서도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상대적 빈곤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 문제 역시 절대적 빈곤 문제와 같이 ‘물질이 결핍된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을 경제적 측면에서 단순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빈곤

빈곤은 개인의 역량부족에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적절한 복지제도의 부재, 부정부패, 불평등한 무역구조, 시장질서의 왜곡 등과 같은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로 야기됩니다. 그리고 그 빈곤은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다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혹은 전 세계의 부를 증대하는 것에 앞서 지금의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체(ODA/PDA)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국가와 국제기구, 개발NGO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재단, 기업 등이 그 활동의 범위와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통적 국제개발 행위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경제 재건을 위한 미국의 마셜 플랜(1948년~1952년 유럽부흥계획,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을 위해 미국이 계획한 재건, 원조 기획이다) 이래,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주요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에 의한 원조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ODA)로 불리며 무상증여와 양허성 차관 형태의 양자원조, 국가 간 기구나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와 지방정부의 원조로 이루어집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은 소수 강대국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자처하는 이른바 신흥 공여국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원조를 받았던 한국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명실상부한 신흥 공여국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OD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정부의 원조기관과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개발 행위자

최근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재단, 기업 등 새로운 행위자가 등장하여 그 활동의 범위와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원조는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민간개발원조(Private Development Assistance, PDA)라고 불립니다. 특히 시민사회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해 개발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주인의식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행위자와 동등한 파트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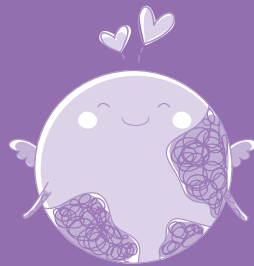




우리는 세계시민

2부

즐거운 개발교육



교안 활용 가이드

본 교재의 특징

가. 중학생 이상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위한 배움, 우리는 세계시민 – 중등 편〉은 중학교 1~3학년 수준에 맞추어 내용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지만, 중학생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체득하도록 합니다.

국제개발협력과 세계시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려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보다는,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수업을 구성합니다. 스스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토론을 통해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 매 차시마다 수업 절차는 3단계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반복적이며 일관성 있는 구성을 통해 교사는 진행 규칙에 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은 다음 수업에 대한 예측을 통해 수업 참여에 대한 성숙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업은 도입, 전개, 정리 3단계로 진행합니다. 또한 모든 수업의 마무리는 표현 카드를 통해 느낀 점이나 배운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공유하는 것으로 합니다. 학생들은 대체로 '좋았다', '재미있다'로 단순하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그칩니다. 따라서 감정의 단어로 구성된 표현 카드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도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수업은 평화가 전제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입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지양하고,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개념을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 모형을 비롯하여 교사의 언어,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든 절차나 방법이 평화적이어야 학생들이 보다 중요한 가치와 윤리,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칭찬과 격려를 통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이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친근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 교사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학생들이 참여를 꺼리기도 하고 관심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강사인 경우, 학생들을 집중시키는 교수적 기술이 부족해서 수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교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경우 칭찬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와 연계

-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세계의 구성과 위치, 인구와 도시, 문화의 다양성, 자원과 환경 등 세계 구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사회 과목 전반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리 영역과 일반사회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지리 영역의 경우 총 1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로는 '위치,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상호작용, 인구, 도시, 문화의 다양성, 세계화와 지역화, 자원, 환경, 영역'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일반사회 영역의 경우도 총 14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중학교 '사회 1'과 '사회 2'에서 세계시민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 사회 1

영역	대단원	중단원	연계
지리	위치	1. 내가 사는 세계	1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의 상호작용	5. 자연재해와 인간생활	1단원
	인구	6.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1단원
일반사회	사회·문화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1단원
	정치	11.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1, 2, 3, 4단원

나. 사회 2

영역	대단원	중단원	연계
지리	문화의 다양성	1.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1단원
	세계화와 지역화	2.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1, 3단원
		3.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1, 2, 3, 4단원
	자원	4. 자원의 개발과 이용	-
	환경	5. 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	1단원
일반사회	영역	7.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1, 2, 3, 4단원
	법	9. 인권 보장과 법	2단원
	경제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1, 3단원
	정치	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1, 2, 3, 4단원
일반사회	사회	14.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2, 3단원

단원 요약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단원명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계시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요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연결성에 대한 이해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촌 이웃 모두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이해 아동 노동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구촌의 빈곤에 대한 인식 빈곤을 없애기 위한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 현재와 미래에 국제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활동 절차	도입	<p>[설명] 강사 소개 및 국제개발협력 사례</p> <p>[설명] 세계시민의 의미</p>	<p>[활동] 세계아동인권선언 관련 퀴즈 및 세계아동인권선언 전문 읽기</p>	<p>[영상 시청]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이야기”</p> <p>[활동] 분노의 식탁 - 불평등을 체험하다</p>	<p>[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 - e, “90%를 위한 디자인”</p>
	전개	<p>[활동] 털실 네트워크 게임</p> <p>[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 - e, “햄버거 커넥션”</p> <p>[활동] 카드 관계도 그리기와 미래로의 타임라인</p>	<p>[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 - e, “파키스탄의 소년, 이크발”</p> <p>[활동] 아동 노동 체험 - 신문지 카펫 만들기</p>	<p>[활동] 빈곤 웨빙 그리기</p> <p>[설명] 빈곤의 원인과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p> <p>[활동] 천사와 악마 설득 게임</p>	<p>[활동] 브레인스토밍 -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p> <p>[활동] 모퉁이 토론 게임</p> <p>[설명]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p>
	정리	<p>[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p>	<p>[활동] 아동 노동 반대 캠페인 표어 만들기</p> <p>[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p>	<p>[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p>	<p>[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p>

1

[1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학습 개요		학습 활동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상호의존하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 알고,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 지구상의 인류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상호연결성에 대해 알고,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끼도록 한다.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의 의미 알기 ■ 탈실 네트워크 게임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결성 체험하기 ■ 동영상 시청을 통해 지구촌 문제의 상호연계성 알기 ■ 지구촌 이슈 관계도 만들기
 활동 절차	도입 5분	[설명] 강사 소개 및 국제개발협력 사례 [설명] 세계시민의 의미
	전개 30분	[활동] 탈실 네트워크 게임 [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 - e, "햄버거 커넥션" [활동] 카드 관계도 그리기와 미래로의 타임라인
	정리 10분	[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준비물		[학생용 학습지] [부록] 표현 카드 탈실 문치 2~3개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A 기법에 따른 나눔교육 만들기, 아름다운 가게 ■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 방법, 세종리더십개발원

2부

즐거운 개발교육

도입

소요 시간 : 5분



강사 소개 및 국제개발협력 사례 → 세계시민의 의미

목적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접해 보는 학생들이 많아 세계시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 수 있다. 세계시민이 어떤 의미인지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서 학생들이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교사 예습



세계시민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세계시민이란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구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세계시민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학생들이 알고 지구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진행



① [설명] 강사 소개 및 국제개발협력 사례

첫 시간이므로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강사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교사일 경우 세계시민교육 및 개발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례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세계시민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강사일 경우 강사가 현재 하고 있는 일 및 단체에 대한 소개나 개발협력과 관련되어서 했던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 영상이나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이 좋고,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것도 좋다.

● 교사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세계시민교육을 함께 하게 될 ○○○선생님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할게요(간략한 강사 소개 :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사례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오늘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여러분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더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② [설명] 세계시민의 의미

세계시민의 의미를 온난화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들과 연관 지어 간단하게 설명한다. 환경은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지구 공동의 이슈이기에 세계시민의 의미 및 공동체성을 이해하기에 좋은 주제이다.

● 교사 : 자, 여러분은 세계시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세계시민은 지구상의 많은 문제들, 빈곤, 불평등, 물과 식량 부족, 재난, 전쟁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최근 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봤는 거예요. 이런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예를 들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행방불명 되는 일들도 일어나죠? 이제는 온난화나 이상 기후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와 상관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듯 지구촌의 고통 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세계시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라는 범위를 넘어서서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세계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개

소요 시간 : 30분



탈실 네트워크 게임 → EBS 지식채널 - e “햄버거 커넥션” → 카드 관계도 그리기와 미래로의 타임라인

목적



우리는 세계시민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 하나가 결국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관련된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동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상호연결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서로 의존해야 한다는 상호의존성을 통해 세계시민의 의미를 체득한다.

교사 예습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0.74도 상승하였으며,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61년 이후 연간 1.8mm, 1993년 이후에는 연간 3.1mm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만약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의 개발이 지속된다면, 평균 온도 및 해수면 상승은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구 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의 문제, 자연재해, 환경오염 문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겪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모두 다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진행



① 탈실 네트워크 게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소중함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게임이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계성의 개념을 알도록 게임의 의미를 전달한다.

◆ 준비물 : 탈실 뭉치 2~3개

◆ 게임 방법

1. 학생들을 원형으로 세운다. 학생이 많을 경우 두 그룹(한 그룹에 10~15명 정도)으로 나누는 것도 좋다. 교사가 먼저 “세계시민은 세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세계시민의 정의를 말한다. 그리고 탈실 공을 다른 참가자에게 던진다. 던지는 사람은 탈실 끝을 팽팽하게 잡고 던져야 한다.
2. 탈실 공을 받은 학생도 “세계시민은 ○○○이다”라고 간략하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다른 학생에게 탈실 공을 던진다. 역시 탈실 끝을 팽팽하게 잡고 던지도록 한다. 자신과 가장 멀리 떨어진 학생에게 탈실 공을 던지는 것이 좋다. 모든 학생에게 탈실 공이 가면 모든 학생이 탈실로 연결되어 있는 탈실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3. 모든 학생들이 탈실을 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게 잡아당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한쪽도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서로 팽팽함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다섯 발자국’ 움직이도록 한다. 학생들은 서로의 탈실을 팽팽히 유지하며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와 움직임도 주시하게 된다.
4. 네트워크가 완성된 후 교사가 조건을 추가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 중에서 동생이 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세 발자국 움직이세요.”, “안경을 쓴 사람은 왼쪽으로 한 발자국 움직이세요.” 등의

조건을 준다. 이때 여러 학생이 움직일 경우 어떻게 되는지, 또 탈실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 등을 알게 된다.

<TIP> 세계시민에 대한 정의를 미리 알려 주세요.

학생들이 “세계시민은 ○○○이다”에 대한 정의 내리기를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세계시민에 대한 정의를 알려 주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해도 좋습니다.

세계시민은

- 지구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상호의존성에 대해 이해합니다.
- 빈곤, 불평등, 교육, 사회정의, 물과 식량의 부족, 재난, 갈등, 평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 지구촌 문제를 비판적 사고를 통한 균형 잡힌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집니다.
- 편견 없는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사 : 여러분, 활동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죠?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황사가 일어나게 되고, 온난화 때문에 지구에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온난화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해물질로 인해 발생하고 그 영향을 다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많은 문제들도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면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② [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 - e, “햄버거 커넥션” (4분 8초)

햄버거는 단순히 빵, 야채, 쇠고기 패티, 소스의 조합이 아니다. 햄버거의 재료가 되는 쇠고기를 얻기 위하여 조성되는 목장에 의한 열대림 파괴 현상, 그로 인해 파괴된 숲은 지구의 온도를 매 순간 높이며, 그 때문에 몰디브의 누군가는 해일에 떠내려가야만 한다.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지구를 살펴볼 수 있다.

◆ “햄버거 커넥션” 내용 요약

빵과 야채가 햄버거의 전부는 아니다. 햄버거 하나를 얻기 위해 소를 키우고 소를 얻기 위해 목초지를 만들고 그러기 위해 숲을 태우고 지구의 온도를 높이고 그 때문에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한다. 햄버거 패티에 쓰일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남한 땅 크기의 목초지가 과도한 방목으로 사막

화되고 있다. 소를 키우기 위해 열대우림이 파괴된다. 쇠고기 100g, 햄버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열대우림 1.5평이 목초지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목초지의 풀과 함께 많은 곡물을 먹어 치우는 소, 1인분의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얻으려면 소에게 22인분의 곡식을 먹여야 한다. 반면, 매년 4~6천만 명이 기아로 사망하고 또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도 심각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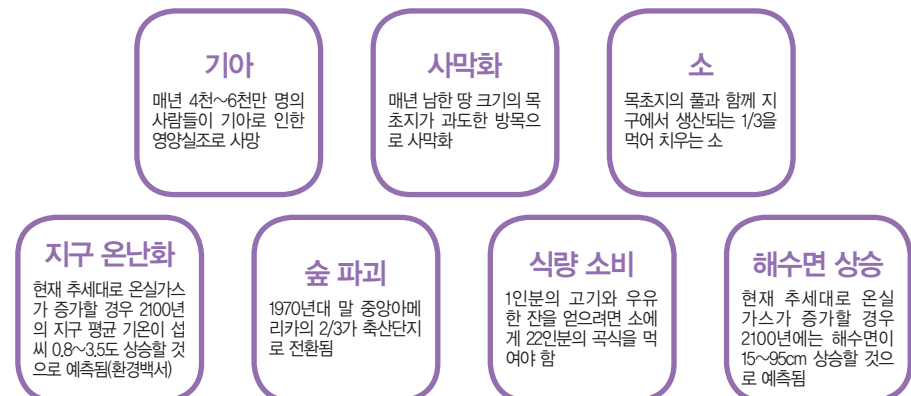
③ [활동] 카드 관계도 그리기와 미래로의 타임라인

“햄버거 커넥션”에 나타난 전 세계의 문제들을 되짚어 보면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둠별로 토론을 하면서 카드 관계도를 그려 보도록 한다. 또한 미래로의 타임라인은 우리가 바라는 미래와 바라지 않는 미래를 상상해 보고 적어 보는 활동이다.

◆ 카드 관계도 그리기

1. 모둠별로 자리를 배치한다. 6인 1모둠이 토론하기에 적절하다.
2. 부록의 원인과 결과 카드를 모둠별로 나누어주고, 각 카드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 기아 : 매년 4천~6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망
- 사막화 : 매년 남한 땅 크기의 목초지가 과도한 방목으로 사막화
- 소 : 목초지의 풀과 함께 지구에서 생산되는 1/3을 먹어 치우는 소
- 지구 온난화 :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경우 210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0.8~3.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환경백서)
- 숲 파괴 : 1970년대 말 중앙아메리카의 2/3가 축산단지로 전환됨
- 식량 소비 : 1인분의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얻으려면 소에게 22인분의 곡식을 먹여야 함(소를 먹이기 위한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를 면할 수 있음)
- 해수면 상승 :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경우 2100년에는 해수면이 15~95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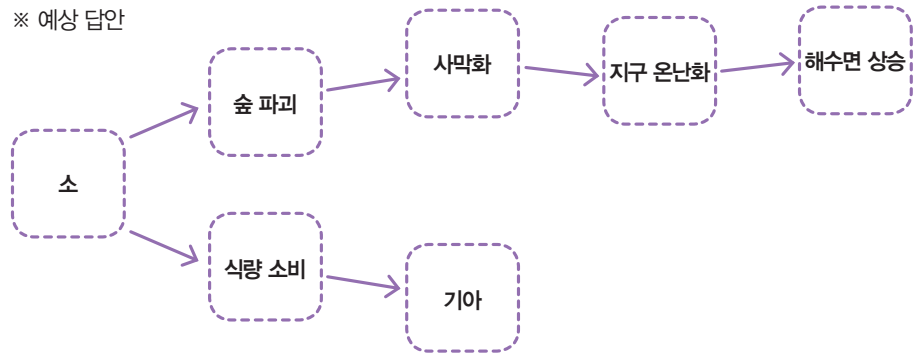


2부

즐거운 개발교육

3.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둠별로 토론해 보고 학생용 학습지의 관계도에 적절하게 카드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빈칸이나 화살표를 더 그려 넣어 다양한 관계도를 그릴 수 있다.

※ 예상 답안



교사 : 우리가 좀 전에 본 영상에서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기아 문제, 사막화 문제, 숲 파괴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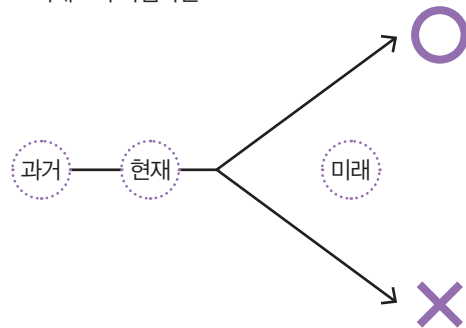
많은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축산단지를 크게 만들어야 하고 그 결과 숲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결과가 생기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쇠고기를 대량생산하면서 생기는 피해들을 막고 좀 더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를 이용한다거나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삼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 등이 있겠죠?

카드에 적힌 현상은 모두 영상에서 언급되었어요. 이 현상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모둠별로 토론해 볼 거예요. 어떤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모둠별로 토론해 보고 관계도를 그려 보세요. 각 모둠별로 작성한 관계도를 발표할 테니 발표자도 뽑아 주세요. 학생용 학습지에 나온 것처럼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며 카드를 도표에 넣어 주세요. 도표의 화살표와 빈칸의 개수는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미래로의 타임라인

1. 모둠별로 배치한 자리를 유지한다.
2. 카드 관계도를 통해 알아본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상하여 적어 보는 활동이다. 모둠별로 토론하여 제시한 문장의 빈칸을 채워 넣도록 한다.

※ 미래로의 타임라인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_____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미래는

 _____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_____
 _____ 노력을 할 것이다.

예시 :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없는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미래는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 받는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 교사 : 여러분의 상상력이 어느 정도일지 선생님이 기대해 보겠어요. 우선 카드 관계도와 미래로의 타임라인을 모둠별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대표로 발표할지도 정해 주세요. 모듬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실현가능한 노력을 적어야 합니다.

정리

소요 시간 : 10분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목적



마무리 시간에 모둠에서 토론 후 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고 마지막으로 수업 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발표해 보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사 예습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모든 학생이 발표하기는 어려우므로 시간 분배를 잘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학생용 학습지를 작성하는 동안 어떤 학생과 모둠이 발표를 하면 좋을지 미리 정해 놓는 것도 좋다. 특히 수업을 통해 얻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학생용 학습지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진행



① [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활동을 통해 느낀 점들을 표현 카드에서 3개 이상의 단어를 골라 문장으로 만들도록 한다. 표현 카드 활동은 개인별로 진행하여 각자의 활동 느낌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교사 :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 중 느꼈던 점들을 표현 카드의 단어들 중 3개 이상을 이용해서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발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적는 거니까 편하게 작성하도록 하세요. 우리가 오늘 알아본 현상들이 모두 상호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해요.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세계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쪽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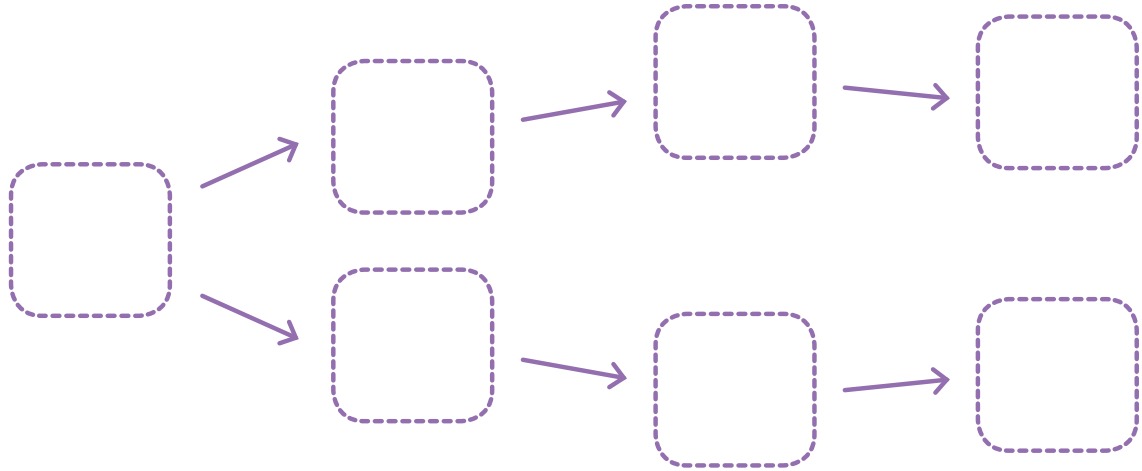
<실천 TIP> 학생용 학습지는 세계시민의 활동을 알리는 좋은 홍보물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국제 이슈나 사안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참여입니다. 학생용 학습지는 세계시민활동을 알리는 좋은 홍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학습지 뒷장이나 여백을 활용하여서 친구나 부모님, 주변 사람들의 덕담과 사인을 받아 다음 수업에 가져오도록 하세요(작고 간단한 선물을 주는 것도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덕담자는 3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덕담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 내용을 읽어 봐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계시민활동을 알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블로그나 SNS 등에 수업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올리도록 지도하여 구체적인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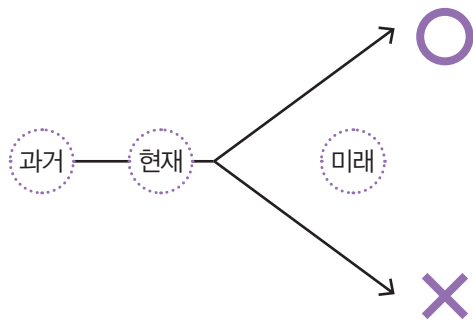
1단원 · 학생용 학습지

◆ 카드 관계도 그리기

원인과 결과 카드를 아래 도표에 넣어 주세요. 도표의 화살표와 빈칸의 개수는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미래로의 타임라인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_____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미래는

_____ 모습이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_____ 노력을 할 것이다.






◆ 1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활동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표현 카드를 활용해 봅시다.

2

[2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학습 개요		학습 활동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한다. ■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아동 노동을 하는 어린이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증진한다. ■ 어린이 인권침해 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다.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아동인권선언 살펴보기 ■ 동영상을 통해 아동 노동에 대해 알기 ■ 아동 노동 체험 활동하기 ■ 인권보호를 위한 간단한 표어 작성하기
 활동 절차	도입 5분	[활동] 세계아동인권선언 관련 퀴즈 및 세계아동인권선언 전문 읽기
	전개 25분	[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 - e, "파키스탄의 소년, 이크발" [활동] 아동 노동 체험 - 신문지 카펫 만들기
	정리 10분	[활동] 아동 노동 반대 캠페인 표어 만들기 [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준비물		[학생용 학습지] 신문지 카펫 만들기: 신문지, A4 용지, 가위, 풀(학생 수 만큼), 조용하고 우울한 배경 음악
 참고 자료		-

도입

소요 시간 : 5분



세계아동인권선언 관련 퀴즈 및 세계아동인권선언 전문 읽기

목적



2단원의 주제는 인권이다. 모든 세계시민들은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계시민으로서 그러한 인권을 지키고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것의 인식을 목표로 한다. 세계아동인권선언을 통해 아동들도 인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권에 대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 예습



학생들이 일반 수업 시간을 통해 인권이라는 단어를 이미 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으므로 인권의 의미에 대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인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생들과 아동인권선언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세계인권선언은 많이 접해 보았지만 아동인권선언은 학생들에게 생소한데 세계시민으로서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계아동인권선언 : 아동인권선언에는 모든 아동들은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아동의 복지권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국제적 의지의 표현이다.

학습 진행



① [설명] 세계아동인권선언 관련 퀴즈 및 세계아동인권선언 전문 읽기

간단한 질문을 통해 아동의 인권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고, 세계아동인권선언을 통해 인권의 의미와 우리가 가진 인권에 대해 알아본다.

1.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간단한 세계아동인권선언 OX 퀴즈를 낸다.

○ X 퀴즈 : 세계아동인권선언에는 놀 권리가 있다? (정답 : ○)

[해설] 세계아동인권선언 7항 -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 권리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아동들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 해서 놀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놀아야 할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2. 세계아동인권선언 전문을 함께 읽으며 내용을 살펴본다. 함께 소리 내서 읽는 것도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다.

2부

즐거운 개발교육

※ 세계아동인권선언

1.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3.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5.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6.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7.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 권리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8.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9.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인간 상호 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교사 :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세계시민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면 행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UN은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아동들도 이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도 이 세계아동인권선언에 있는 인권을 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에서 어떤 아동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전개

소요 시간 : 25분



EBS 지식채널 - e, “파키스탄의 소년, 이크발” → 아동 노동 체험 - 신문지 카펫 만들기

목적



영상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하며 살고 있는 아동의 현실에 대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교사 예습



“파키스탄의 소년, 이크발” 영상 시청과 체험 활동에 학생들이 진지한 자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동 노동으로 인권을 착취당하고 있는 아동들의 현실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진행



① [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 - e, “파키스탄의 소년, 이크발” (4분 34초)

아동 노동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아동 노동자 이크발의 이야기를 시청한다. 영상을 통해 아동 노동으로 인해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인권에 대해 알 수 있다. 영상 시청 후 이크발이 보호받지 못한 아동 인권의 내용을 학생용 학습지에 적어 보도록 한다. 대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물어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파키스탄의 소년, 이크발” 내용 요약

파키스탄의 카펫 공장에서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이상, 잘 먹지도 못한 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크발이라는 한 소년은 카펫 공장을 탈출하게 되고, 한 단체의 도움으로 아동 노동 착취의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어느 날, 이크발은 총격으로 죽게 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공장장들의 소행이라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아동 노동 착취의 현실에 대해 알고 아동 노동 침해에 대해 알 수 있는 영상이다.

교사 : 우리가 이크발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크발이 갚아야 하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나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는데도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이크발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크발이 어떤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는지, 어떤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는지 찾아 보았나요? 자, 어떤 아동 인권이 보호받지 못했나요? 6명이 한 모둠이 되어서 의논해 보고 학생용 학습지에 적어 보세요.

이크발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제외하고 아동인권선언의 거의 모든 권리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크발처럼 현재 아동 노동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는 ILO(국제노동기구) 추산 약 2억 5천만 명(우리나라 인구의 5배)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여러분이 이크발처럼 학교를 가지 못하고 아동 노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② 아동 노동 체험 - 신문지 카펫 만들기

모둠별로 아동 노동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신문지 카펫 만들기’ 체험을 통해 아동 노동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공유해 보는 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

2부

즐거운 개발교육

하다. 학생들이 단순히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 노동의 현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준비물: 신문지, A4 용지, 가위, 풀(학생 수 만큼), 조용하고 우울한 배경 음악

◆ 활동 방법

1. 학생들을 6명씩 한 모둠으로 나눈다.
2. 역할 배분 : 모둠원 중 한 명은 공장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동 역할을 한다.
3. 공장장 역할을 하는 학생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신문지와 A4 용지를 나눠주고 신문에서 정해진 한 글자(예를 들어, '다' 자)를 찾게 하여 오리게 하고 오린 글자를 A4 용지에 뽀뽀하게 붙여서 카펫을 만들도록 한다. 공장장의 역할을 맡은 학생은 실제로 아동 착취를 하는 공장의 공장장처럼 아동들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일을 빨리 하지 못할 경우 아동들을 혼내거나, 식사를 제때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
4. 일종의 역할극 형태로 진행하지만 학생들이 그 안에서 아동 노동 체험을 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교사 : 모둠 활동을 할 텐데요. 모둠원 중 한 명은 악덕 공장장 역할, 나머지 학생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동 역할입니다. 공장장 역할을 할 친구 한 명을 뽑아 주세요.

공장장 역할은 이 활동에서 중요한데요. 친구들에게 신문지와 A4 용지 한 장씩 나눠주고 신문지에서 한 글자, 예를 들면 '다' 자를 찾게 하세요. 찾은 글자를 오려서 A4 용지에 뽀뽀하게 붙이면 신문지 카펫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장장은 카펫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팔고 이윤을 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가장 적은 아동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카펫을 만들어 내도록 아동들을 압박하세요. 카펫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다그쳐도 됩니다. 밥을 안 주겠다고, 잠을 안 재우겠다고 등의 협박을 해서 아동들이 일을 빨리 끝내도록 합니다. 노동 착취를 당하는 학생들은 실제로 아동 노동을 하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고 나중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서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펫 만들기 노동을 시작해 볼까요?

〈TIP〉 자신의 역할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학생들은 빨리 카펫을 완성시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장과 노동자의 구분 없이 함께 글자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세요.
- 체험 활동 시 돌아다니며 공장장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교사 : 아동 노동을 경험하면서 어땠나요? 공장장이 너무 힘들게 해서 괴로웠나요? 가장 심하게 대한 공장장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다면 이크발처럼 탈출해서 고발하는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체험 활동을 해 보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구하기 위해,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TIP> 인권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란 인권과 개발이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이 두 영역을 통합하려는 시도입니다. 최근 개발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정부 간 이해관계 때문에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인권을 기반으로 한 개발에 대한 접근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소외시키고 개발의 열매를 나누는 수익자가 그들 자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개발 혜택의 배분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이는 그 국가 혹은 지역 내에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특정 지역주민들이 하루아침에 오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지역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인권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이라는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한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인권의 증진 문제는 서로 떨어뜨려 생각하거나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인권과 개발은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의 전제 조건이라고 볼됩니다. 개발의 과정과 목적이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에 부합하는지, 개발의 수혜가 구성원 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다른 소외를 낳지 않는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부

즐거운 개발교육

정리

소요 시간 : 10분



아동 노동 반대 캠페인 표어 만들기 →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목적



학생들이 아동 노동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아동 노동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캠페인 표어를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오늘의 활동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한다.

교사 예습



학생들이 체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캠페인 표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캠페인 표어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이 체험 활동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 노동 착취의 현실을 알리는 데 동참하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습 진행




① 아동 노동 반대 캠페인 표어 만들기

아동 노동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상상해 보고 표어를 만드는 활동을 해 본다. 이 활동을 통해서 아동 노동을 반대하는 느낌을 표현하도록 지도한다.

◆ 예시 문장

1. 아동 노동으로 고통 받는 2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공장 대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노동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들, 전 세계 2억 5천만 명, 그 어린이들의 손에 연필을 쥐어 주세요.

 **교사 :** 아동 노동을 반대하기 위해 애쓰는 국제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국제단체에서 일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동 노동 반대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캠페인 진행을 위해 포스터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포스터에 사용될 표어를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동 노동의 현실을 알리는 포스터 표어를 만들어 보세요. 어떤 기발한 문구가 나왔는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IP> 표어와 함께 그림을 그려 포스터를 제작해 보아도 좋습니다.

- 수업 진행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그림을 함께 그려 포스터를 제작해 보아도 좋습니다.
- 나아가, 교내 혹은 교외에서 아동 노동 반대 캠페인을 실제로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② [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수업에서 느낀 점들을 표현 카드에서 3개 이상의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으로 만들고 발표한다.

◆ 준비물 : [부록] 표현 카드

교사 : 아동 노동을 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표현 카드에서 적절한 단어를 3개 이상 골라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 보세요.

<실천 TIP> 소비 습관의 개선으로 아동 노동 반대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근로 환경이 열악하여 건강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사나 보도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관련 브랜드나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도 세계 시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참여 방법입니다. 또한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거나 지역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빈곤퇴치를 위한 선순환을 일으키는 소비입니다.

2단원 · 학생용 학습지

◆ 세계아동인권선언 내용 중 이크발이 보호받지 못했던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세계아동인권선언

1.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및 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를 가질 권리
3.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4. 적절한 영양, 주거, 의료 등의 혜택을 누릴 권리
5. 심신장애 어린이는 특별한 치료와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권리
6.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는 환경 아래서 양육될 권리
7.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놀 권리와 여가 시간을 가질 권리
8. 전쟁이나 재난으로부터 제일 먼저 보호받고 구조될 권리
9.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0. 인간 상호 간 우정, 평화 및 형제애 정신으로 양육될 권리

◆ 아동 노동 퇴치를 위한 캠페인 포어 만들기






◆ 2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활동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표현 카드를 활용해 봅시다.

3

[3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요



학습 개요		학습 활동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으로서 지구촌의 빈곤 문제 및 불평등으로 인해 생긴 어려움에 대해 인식한다. ■ 빈곤의 원인과 결과를 알아봄으로써 불평등한 세계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본다. ■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키운다.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현실 접하기 ■ 게임을 통해 세계의 불평등한 상황 체험하기 ■ 빈곤을 주제로 한 웹빙을 통해 빈곤의 원인, 현상, 결과를 찾아보고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해 이해하기 ■ 빈곤의 원인을 통해 우리가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 발견하기
 활동 절차	도입 5분	[영상 시청]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이야기" [활동] 분노의 식탁 - 불평등을 체험하다
	전개 25분	[활동] 빈곤 웹빙 그리기 [설명] 빈곤의 원인과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 [활동] 천사와 악마 설득 게임
	정리 10분	[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준비물		[학생용 학습지] 학생 수만큼의 간식(과자, 꿀 등 크기가 작은 것으로 준비)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학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코피온

2부

즐거운 개발교육

도입

소요 시간 : 5분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이야기” → 분노의 식탁 - 불평등을 체험하다

목적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영상 시청과 체험 활동을 통해 접해 보고 지구촌의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 느껴 본다.

교사 예습



전 세계 식량의 양은 곡물의 양을 예로 들었을 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은 만큼 충분하다고 한다. 그러나 불평등한 분배로 인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영상 시청과 분노의 식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느껴 보도록 한다. 분노의 식탁 활동이 끝난 뒤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 진행



① [영상 시청]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이야기”(3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가능)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교육적, 사회적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 영상을 보면서 빈곤, 기아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 느껴 보도록 한다. 영상 시청 후에는 절대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계시민으로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이야기” 내용 요약

쓰레기 마을 아이들의 하루를 살펴보면 지구촌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단의 빈곤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지금 이 순간 마다가스카르에는 생계를 위해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줍고, 더러운 것을 알면서도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있다. 매일 학교가 아닌 쓰레기장으로 향하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쓰레기가 아닌 책을 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

● 교사 : 오늘의 주제는 지구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빈곤입니다. 절대적 빈곤, 하루 생계비 1.25달러, 우리 돈으로는 하루 약 1,500원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22.7%에 달하는 12억 9천만 명이나 됩니다(World Bank, Annual Report, 2012). 우리는 하루에 1,500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 정도는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생활이 인간적인 삶, 안정적인 삶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동일한 권리를 갖고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는데 지구촌 한편에서는 빈곤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넘쳐나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기아와 영양실조가 문제 되고 있을까요?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세계시민으로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체험 활동을 할 텐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불평등이 어떤 것인지 직접 체험해 보았으면 합니다.

② [활동] 분노의 식탁 - 불평등을 체험하다

분노의 식탁은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의 인구 비율과 부의 분배 정도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다. 북반구에 있는 나라는 대부분 선진국이며, 남반구에는 개발도상국 혹은 빈곤국이 위치해 있다. 불공평한 분배에 대해 체험해 보고 그 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야기해 본다.

◆ 준비물 : 학생 수만큼의 간식(과자, 굴 등 크기가 작은 것으로 준비)

◆ 게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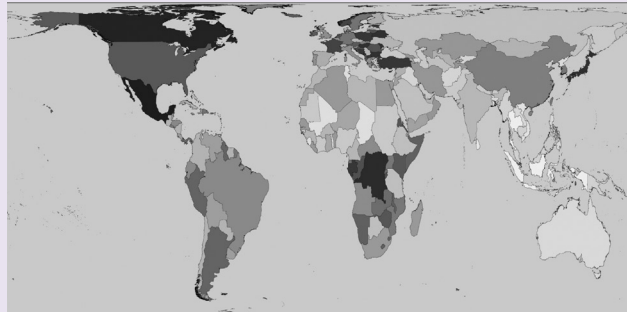
1. 학생들의 수를 1 : 2 비율로 하여 두 팀으로 나눈다. 제비 뽑기나 간단한 게임을 통해 나눌 수 있다. 인원 수가 적은 쪽이 '북팀', 많은 쪽이 '남팀'이 된다. 예를 들어 전체 인원 30명을 기준으로 팀을 구분할 때 10명이 북팀, 20명이 남팀이다.
2. 각 테이블에 같은 분량의 간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각 팀별로 나누어 먹도록 지시한다.
3. '북팀'은 '남팀'의 두 배에 해당하는 분량의 간식을 받게 된다. 조건은 이것이 전부이지만, 실제로 시행해 보면 다양한 현상이 일어난다.

☞ 교사 : 지구의 북반구에는 남반구보다 적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요.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선진국이 많고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 혹은 빈곤국이 많아서 식량이 부족하거나 빈곤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팀에 있는 학생들, 제비 뽑기로 남팀으로 결정된 것뿐인데 음식을 더 적게 먹을 수밖에 없네요. 억울하거나 불평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 때문에 기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량이 전체적으로 모자랐나요? 그렇지 않았죠? 사실 전 세계 식량의 양도 모든 사람들이 먹기에 모자란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음식이 남아서 문제가 되고, 한쪽은 기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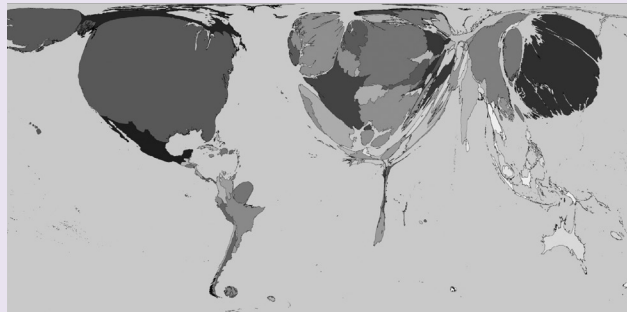
〈TIP〉 학생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반응을 자연스럽게 수용해 주세요.

- 실망한 표정으로 적은 양의 간식을 빨리 해치운 학생
- 투덜거리며 먹는 학생
- 안 되었다는 표정으로 많은 양의 간식을 다 먹어 버리는 학생
- 미안해하면서 간식을 거의 먹지 않은 학생
- 미안해하지만 그래도 전부 먹은 학생
- '남팀' 테이블로 가서 나누어주는 학생
- 이런 프로그램은 하지 말자고 요청하는 학생

<TIP>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를 설명할 때 세계지도와 불평등 지도를 함께 보여 주시면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세계지도〉 나라의 면적을 기준으로 그려진 지도



〈부의 분배〉 GDP를 기준으로 그려진 지도
(GDP 수치가 높을수록 대륙의 크기가 크게 그려짐)

출처 : www.worldmapper.org

전개

소요 시간 : 25분



빈곤 웨빙 그리기 → 빈곤의 원인과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 → 천사와 악마 설득 게임

목적



빈곤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빈곤의 원인에 대해 찾아 보도록 할 것이다. 빈곤의 원인이 게으름, 무책임 등 개인의 역량 부족이기보다 사회적인 불평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빈곤은 물질의 결핍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질서 속의 배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 빈곤의 다면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교사 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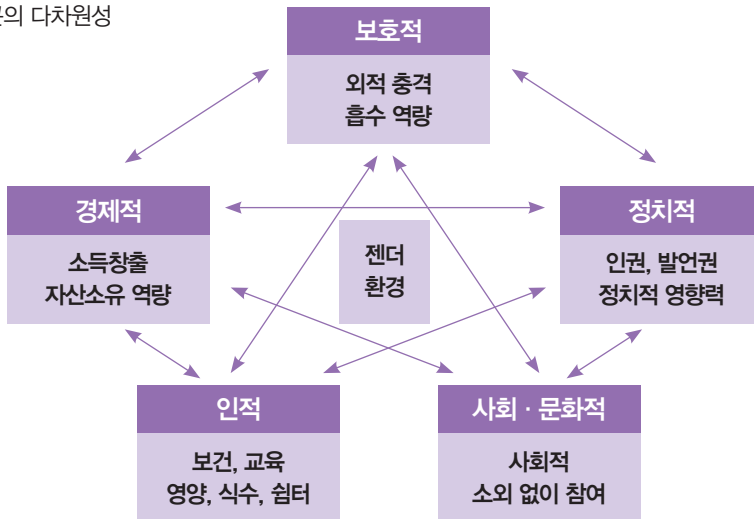


빈곤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빈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다. 천사와 악마 설득 게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려운지, 왜 도와야 하는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한다.

〈TIP〉 빈곤은 여러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빈곤을 경제적 궁핍 상태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빈곤을 정의할 때는 개개인이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겪는 역량의 박탈이 모두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빈곤의 주요한 차원들을 보여 줍니다. 이는 빈곤이 경제, 정치, 사회·문화, 보호, 성평등, 환경 등 다면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빈곤 감소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특히 성평등 및 환경 등 범 분야(cross-cutting) 이슈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빈곤의 다차원성



학습 진행



① [활동] 빈곤 웨빙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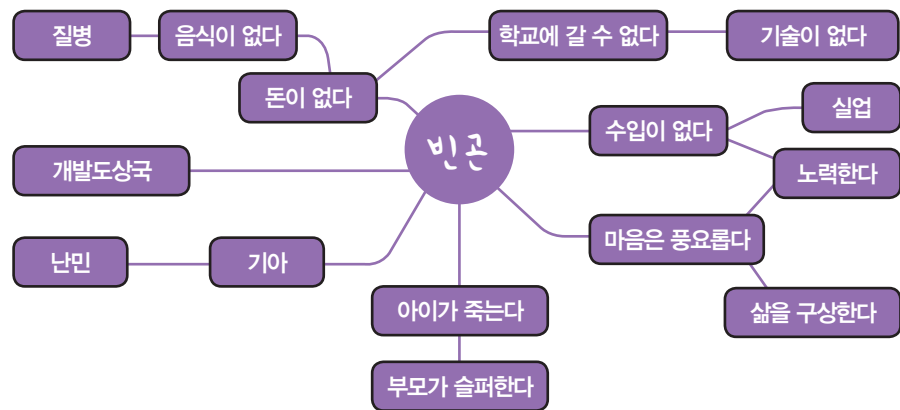
빈곤의 원인과 현상, 결과를 학생들 스스로 찾아 나갈 수 있는 활동이다. 정답은 없다. 학생들이 상상력을 동원하여 빈곤과 관련된 키워드 혹은 느낌 등 연상되는 단어를 적을 수 있도록 한다.

◆ 준비물 : 전지, 매직

◆ 진행 방법

1. 서로 이야기할 주제인 '빈곤'을 종이 한가운데 크게 적는다.
2. 학생에게 그 주제를 보고 연상되는 사물이나 키워드를 순서대로 발표하게 하고 주변에 그 키워드를 적어 나간다.
3. 기입한 단어, 키워드들에서 연상되는 것을 다시 적어 넣는다. 이 작업을 반복하면 대주제를 둘러싸고 부제가 거미줄 모양으로 퍼져 나간다.

※ 빈곤 웨빙 예시



② [설명] 빈곤의 원인과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

웨빙 작업을 마무리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빈곤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 것인지, 왜 우리가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이해시킨다.

🗣️ 교사: 빈곤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식량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만 분배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한쪽은 굶주리고 한쪽은 음식이 남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자연재해나 아프리카처럼 사막이 많은 환경 등 불리한 자연환경 때문에 식량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책임감이 없어서 빈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것도 여러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으나 그것이 빈곤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환경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빈곤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은 빈곤국을 도와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단지 태어난 지역 때문에, 피부색 때문에 그런 권리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세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한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해외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내에서 이익을 거두는 기업 중에 사회 공헌을 하지 않는 기업보다 사회 공헌에 열심인 기업이 존경을 받습니다. 세계 무대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상대로 막대한 이득을 얻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여하지 않는다면, 같은 평가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한국전쟁을 겪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많은 단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굶주리고 할벗었던 우리 국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를 도운 나라를 보면 강대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형편보다 훨씬 못한 나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어려워질 수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어려운 형편이 되어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돈의 가치는 나라마다 다르지요?

3만 원은 빈곤국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개발국의 아이들이 월 3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다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영양식을 먹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월 3만 원 정도면 해외 빈곤국의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선진국의 빈곤국에 대한 '경제적 식민지화'는 계속되고 있고, 경제와 정치를 모르는 아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세계화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빈곤의 굴레를 끊어 주어야 합니다.

〈TIP〉 빈곤의 원인과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

◆ 빈곤의 원인

빈곤은 소득이나 필요한 물질이 부족한 현상만이 아니다. 빈곤은 그 원인이 대부분 지역, 사회,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결과가 사람들의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며 한 국가 내의 혹은 국가 간의 불평등한 구조의 결과이다.

◆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

1.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다. 생명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므로 모두가 유지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부

즐거운 개발교육

2. 세계를 대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 세계 일원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
3.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4. 사람은 누구나 어려워질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5. 마중물이 있어야 땅속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그들에게는 빈곤 탈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6. 경제적 식민지화로 인한 빈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TIP> 학생들 스스로 도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빈곤의 다차원성 때문에 빈곤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의 공감을 얻어 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 빈곤의 현상을 정확하게 알려 주되, 자칫 동정심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생들이 스스로 도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활동] 천사와 악마 설득 게임

우리가 왜 빈곤한 이웃을 도와야 하는지에 대해 천사와 악마 설득 게임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나눠 본다. 천사와 악마 설득 게임은 찬반 토론에 역할 게임을 접목한 것으로 일상에서 접하는 갈등 소재를 가지고 상황을 설정하여 갈등 상황을 체험해 보는 것이다.

◆ 준비물 : [학생용 학습지] 천사와 악마 역할 카드

◆ 게임 방법

1. 학생들을 6명씩 한 모둠으로 묶고 그 중 2명은 천사, 2명은 악마, 2명은 선택자 역할을 한다.
2. 선택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천사와 악마가 말하는 내용을 모두 듣고 난 후, 마음에 드는 편을 선택해야 한다.
3. 천사와 악마는 학생용 학습지의 천사와 악마 역할 카드의 대사를 참고해서 어떤 내용으로 선택자들을 설득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설득하면 된다.
4. 선택자는 중간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말은 하지 않는다.
5. 게임을 시작하고 난 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천사와 악마의 이야기를 들은 선택자가 천사나 악마의 손을 들어 승자를 정해 줌으로써 게임은 끝이 난다.
6. 승패가 정해지고 나면, 진행자는 선택자에게 결정의 이유를 묻는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갈등 상황에 대한 토론을 이어 간다.

교사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실제로 빈곤국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나라는 빈곤국을 돕는 해외 원조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으로 1인당 3만 5천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어요. 전체 규모로 볼 때는 15억 5천만 달러 즉, 한화로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해요. 우리 정부의 ODA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투명한 집행으로 한국 ODA 정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TIP> 빈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

서양 속담에 '부지런하면 가난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나은 삶을 살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빈부 상태를 전적으로 특정 개인의 성향과 노력의 결과로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걸까요?

월드뱅크의 세계개발보고서(2000/2001년)에서는 빈곤을 개인적인 성향과 노력 여하로만 보아서는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없으며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등 인간의 다방면에서 발생하기 마련인 구조적인 불평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빈곤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빈곤은 소득과 자산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양질의 일자리를 갖지 못해 가난해진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교육, 건강 등에 대한 투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밖에 없게 되므로 더욱 심화되는 빈곤 상황에 처하게 된다.
- 2) 빈곤은 자신의 요구와 주장을 펼칠 수 없는 상황과 이로 인해 느끼는 무력함 때문에 발생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들의 요구를 국가나 사회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과 차별은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 3) 빈곤은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난한 사람은 자연재해나 인재에 취약한 지역에 살거나 이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취약성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나 질병 치료 등에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게 하여 이들의 빈곤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출처 :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 교육원

2부

즐거운 개발교육

정리

소요 시간 : 10분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목적



학습 내용에 대한 느낌을 정리해 본다.

교사 예습



수업이 진행될수록 학생들의 표현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학생들의 표현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해 준다.

학습 진행



① [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수업에서 느낀 점들을 표현 카드에서 3개 이상의 단어를 선택하여 문장으로 만들고 발표한다.

교사 : 빈곤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빈곤의 원인은 그들 내부의 문제에서 오기도 하지만 자연재해나 불평등처럼 외부에서 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해결하고 빈곤 때문에 겪는 고통이 없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세계시민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TIP>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현황

- ODA는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 ODA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입은행이,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5억 5천만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3만 5천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이는 ODA/GNI(국민총소득) 비율로 0.14% 정도이며, OECD 권고 비율인 0.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OECD 개발원조위원회 24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 그리스에 이어 끝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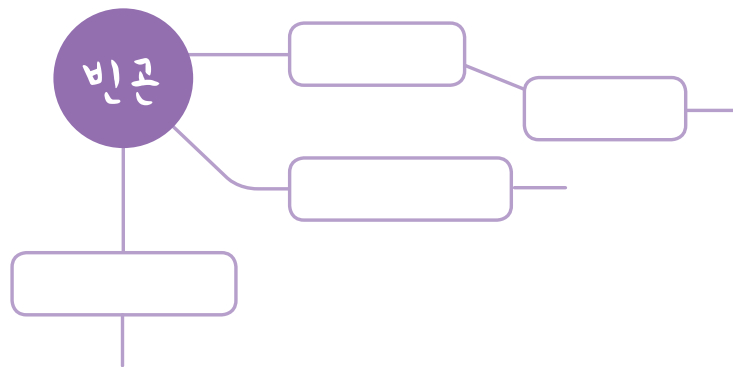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ODA 규모, 2012년 경향신문, '한국인 1인당 ODA 3만 4,900원 내고 있다', 2013. 4. 4

<실천 TIP> 우리나라 ODA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보세요.

전 세계의 빈곤퇴치를 위한 각국 정부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위상에 맞게 OD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정책을 찾아보세요. ODA KOREA,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적절한 규모이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ODA 투명성 향상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지 서명과 인증샷 올리기로 온라인(goodaidinfo.tumblr.com)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3단원 · 학생용 학습지

◆ 빈곤의 원인과 현상, 결과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연상되는 사물이나 키워드를 적고 연결해 보세요.








◆ 3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해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활동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표현 카드를 활용해 봅시다.

4

[4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도울 수 있어요



학습 개요		학습 활동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으로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제개발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 ■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주체에 대해 알아 보고 각 주체별로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 우리가 현재, 미래에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토론해 본다.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사례 알기 ■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빈곤 문제 해결 및 국제개발을 통한 전 세계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찾아보기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나눔 활동 계획하기
 활동 절차	도입 10분	[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e, "90%를 위한 디자인"
	전개 30분	[활동] 브레인스토밍 -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활동] 모퉁이 토론 게임 [설명]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정리 5분	[활동]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준비물		[학생용 학습지] [부록] 표현 카드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형 학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코피온 ■ PLA 기법에 따른 나눔 교육 만들기, 아름다운 가게 ■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 방법, 세종리더십개발원

도입

소요 시간 : 10분



EBS 지식채널-e, “90%를 위한 디자인”

목적



세계시민으로서 현재, 미래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교사 예습



EBS 지식채널-e, “90%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적정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적정 기술이란 그 기술이 사용되는 사회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조건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술로, 인간의 삶의 질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적정 기술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알게 한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기술과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학생들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도록 지도한다.

학습 진행



① [영상 시청] EBS 지식채널-e, “90%를 위한 디자인” (4분 18초)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도록 한다.

◆ “90%를 위한 디자인” 내용 요약


기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제품들, 외관만 변형시켜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상품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제품의 기능과 무관하게 폐기되는 현실에 반기를 든 디자이너 빅터 파파빅은 “사물을 그저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다”라고 외치며 현실 세계를 위한 디자인을 시작한다. 그는 화산 폭발이 잦은 인도네시아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버려진 강통으로 9센트짜리 라디오를 개발한다. 그 외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식수를 얻기 위해 매일 수킬로미터씩 걷는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75리터의 물을 쉽게 운반할 수 있는 ‘Q 드럼’을 개발하고 냉장고가 없는 이들을 위해 항아리, 모래, 물만 이용해 음식물 보관 장비를 만든다. 빈곤층, 저개발국가의 국민 등 지구촌 90%의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디자인의 목표는 인간의 환경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까지도 변형시키는 것이다.

교사 : 영상 속 90%는 저개발국가, 장애인, 빈곤층 등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술의 사례로 ‘Q 드럼’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기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디자인인데요. 이러한 디자인,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적정 기술에는 간단한 아이디어와 봉사정신만 갖추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화려하진 않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적정 기술에는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개발하여 남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자신이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고, 또 자신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즐거운 개발교육

전개

 소요 시간 : 30분 

브레인스토밍 → 모퉁이 토론 게임 →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제

목적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는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앞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교사 예습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의 의미와 내용을 어렵게 느낄 수 있으므로 브레인스토밍과 모퉁이 토론 게임을 통해서 나의 참여부터 점검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나눔 활동의 네 가지 요소(자원봉사, 마음, 홍보, 후원)가 모두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진로와 연결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것이다.

학습 진행



① 브레인스토밍 -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

1. 빈곤과 인권 박탈 등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참여가 필요한지 자유롭게 이야기 하게 하고, 칠판에 적는다.
2.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한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자원봉사
 -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관심
 - 전 세계에 빈곤 등의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촉구하는 홍보 활동
 - 모금, 후원 활동
3. 칠판에 적힌 단어들을 위의 네 가지로 구분해 준다.

 교사 : 빈곤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말해 볼까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말한 내용을 칠판에 다 적었는데요. 적은 것들을 정리해 보면 1. 자원봉사, 2.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관심, 3. 전 세계에 빈곤 등의 문제를 알리고 도움을 촉구 하는 홍보 활동, 4. 모금, 후원 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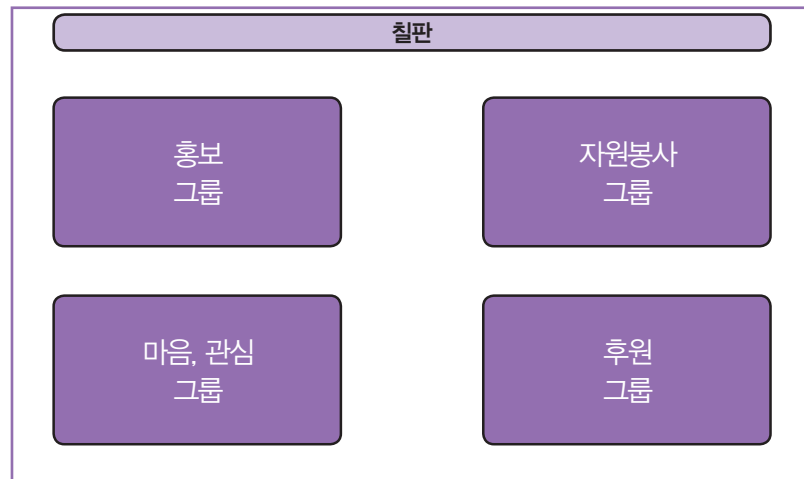
② 모퉁이 토론 게임

학생들이 교실의 모퉁이로 움직여 이동하면서 진행한다. 주제에 대해 동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이유를 공유하게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해 자신의 모퉁이로 이동하게 하는 게임이다. 본인의 선택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진행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의사표현 능력과 발표력을 키우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 진행 방법

1.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제시한 방법들을 크게 네 가지(더 적거나 많은 수로 분류 가능)로 분류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한다.
2. 주제별로 각 그룹을 교실의 네 모퉁이에 각각 모이게 한 후 모퉁이장을 선별하도록 한다.
3. 모퉁이장의 진행으로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홍보 활동(주제 변경 가능)이 가장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토론하게 한다. 이때 정리된 주장을 간단히 적게 하는 것이 명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 좋다.
4. 서로의 주장을 잘 듣고 반박할 수 있으며 또 그 주장이 타당한 것 같으면 다른 주제 그룹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교사는 한 그룹의 발표를 들은 후 "이동할 사람이 있나요?"라고 물어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

※ 교실 배치 예시



●) 교사 : 마음 그룹은 마음이 없으면 후원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의견인데요. 아무리 후원이 많아도 마음이 정말 중요하지요. 이 의견을 듣고 마음 그룹으로 옮길 친구 있나요? 그럼 후원 그룹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원 그룹은 결국 후원이 많아져야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의견이군요. 이 의견에 반박할 그룹 있나요? 네, 좋습니다. 홍보 그룹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 세계의 빈곤 현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자원봉사 그룹은 어떤가요? 후원, 마음, 홍보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의견도 참 좋네요.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실천하는 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사실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활동 모두가 필요해요. 이것을 전문가로서 직업으로 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직업과 관련 기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TIP〉 평화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세요.

- 모퉁이 토론 게임은 학생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학생들의 참여율이 높은 활동입니다.
- 다만 다른 그룹과 의견을 나눌 때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미리 주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퉁이 토론 게임을 하면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가려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조율해가며 자신이 가진 생각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③ [설명]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지구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국제개발협력이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다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을 하며 설명한다.

◆ 설명 방법

1.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라고 하며,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1) 정부, 2) NGO, 3) 국제기구, 4) 민간기업으로 구분하고, 〈TIP〉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널리 알려진 인물을 소개하며 설명하거나 학생용 선택 학습지에 있는 사례를 활용하여 소개할 수 있다.

☞ 교사 : 나에게 당연한 것이 남에게도 당연한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지만,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 같아요. 바로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죠. 개발도상국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병원, 학교를 지어 주는 일,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하는 일 등이예요.

이렇게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한국의 사무실과 개도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의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거나 조금 더 선진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또 후원금을 모으고 관리하기도 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개도국 주민들을 만나서 무엇이 불편하고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것이 마련되거나 시행될 수 있도록 하지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는 주체 간에는 큰 차이점도 있어요. 먼저 정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일부로 어려운 지구촌 이웃을 도와줘요. 이때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고 되돌려 받기를 약속하고 빌려 주기도 해요.

또 다른 주체로 NGO가 있어요.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 유명 연예인이 홍보대사로 참여하여 매스컴에 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개발NGO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며 오지 마을로 들어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돌보고 있어요.

이번에는 국제기구예요. 대표적인 기구인 UN을 살펴봅시다. UN은 국가들의 연합으로 초국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안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국가들이 국가 규모에 따라 부담하는 지원금을 모아 운영해요. UN 외에도 특정 전문 분야마다 기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업에서도 지구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있어요. 이윤을 내는 것이 목표인 기업이 누군가를 돕는다니 의아하지요? 시민의 선택과 소비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서 사회는 기업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업도 국제개발협력의 한 주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계시민이 이 지구촌 이웃들과 더불어 협력하는 주인공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마음을 열고 협력할 때 진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지구촌 이웃을 위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요.

<TIP> 국제개발협력의 의미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문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을 말합니다.

<TIP>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 정부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교통상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 기획재정부 산하의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무상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직업교육, 교육환경 개선, 의료보건사업, 긴급구호, 전문가초청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유상원조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과 같은 개별 기관 역시 전문성을 살려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으며, 각 시와 도의 지방자치단체도 자매 결연 등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개발협력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 개발NGO : NGO는 비정부 기구(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인권, 환경, 경제, 정치 등 현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다룹니다. 국경없는의사회, 그린피스, 국제엠네스티 등이 전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에도 최초의 NGO인 한국YMCA전국연맹, 월드비전을 비롯한 수많은 NGO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시민사회의 성숙과 경제 성장으로 다양한 개발NGO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 역시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각급 학교별로 세계시민교육, 개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국제협력방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개발 혹은 국제협력 관련 학과 및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부

즐거운 개발교육

- 국제기구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UN과 같은 정부간 기구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UN은 크게 UN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 사람인 반기문 총장은 UN 사무국의 총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MF, WHO, 세계은행, UNESCO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입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분쟁에 무력으로 개입하며 평화유지군을 두기도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전쟁 후 전범을 재판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 민간기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의 강조와 함께 민간기업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별로 후원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접 재단을 세우거나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이윤 추구만이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함께 달성하려는 기업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공정무역 커피나 초콜릿 등을 파는 회사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TIP〉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직업군
 ※ 학생용 선택 학습지의 사례와 연계하여 직업 및 참여를 소개할 수 있다.

분류	해당기관	주요업무	직업군	채용정보	사례
정부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제개발 프로젝트 사업 국내초청연수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재난긴급구호 평화구축지원 사업 민-관협력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사업	연구 조사, 각분야전문가 (교육, 여성, 환경 등)	www.koica.go.kr	사례 1, 3
개발 NGO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월드비전,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해비타트, 팀앤팀 등	국제개발 프로젝트 사업 국내초청연수 사업 해외봉사단 파견 해외재난긴급구호	현장 활동가, 본부 행정가 NGO 전문직	www.ngokcoc.or.kr 등 각 단체 웹사이트 공지	사례 2, 4, 7

국제 기구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월드뱅크 등	농림업, 광업, 상공업, 무역 분야에서의 개발자원 조사, 평가 기술 및 전문 경영인력 양성 및 훈련 개발투자자원 유치 현대기술 도입 및 응용 경제, 사회개발계획 지원 개발도상국 간 기술협력 지원 (활동범위 : 농수산업, 광공업, 전력생산, 교통, 통신, 무역, 보건, 주택, 교육, 훈련, 공공행정 등 경제·사회 제 분야)	전문직, 현장 활동가	UN 채용 사이트: http://careers.un.org Word Bank 채용 사이트 www.worldbank.org/jobs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www.mofa.go.kr/unrecruit	사례 5
민간 기업	일반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컨설팅, CSR팀, 옹역기업, 무역회사, 엔지니어링, 건축회사, 각종 협회 국제협력팀 등	기업 경영자, 홍보 전문가, 재정 전문가, 자원 봉사자 등	-	사례 6

2부

즐거움 개발교육

정리

소요 시간 : 5분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목적



지구촌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룹 토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만들어 본다.

교사 예습



오늘의 수업을 돌아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자연스럽게 국제개발협력의 주체와 하는 일들, 참여 방법,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이와 관련한 재정과 인프라를 늘려 나가는 추세이다. 학생들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로와 참여 방법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학습 진행



① 표현 카드로 느낌 공유하기

활동을 통해 느낀 점들을 표현 카드에서 3개 이상의 단어를 골라 문장으로 만들고 발표한다.

교사 : 이제까지 여러분은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했는데요. 어땠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계는 우리나라도 속해 있는 지구촌입니다. 이런 지구촌에서 살아가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활동처럼 아는 것을 넘어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세계시민이 됩시다.

【실천 TIP】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참여 방법

분류	참여방법	대상	관련정보
정부	한국국제협력단 지구촌 체험관	누구나	www.koica.go.kr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코리아 봉사단	20세 이상	www.worldfriendskorea.or.kr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단기캠프	대학(원) 재학생	www.edcfkorea.go.kr
개발 NGO	민간단체 단기·장기 해외봉사단	중고생 이상	www.ngokcoc.or.kr(활동참여 코너)
	캠페인: 홍보, 후원 모금	누구나	개별 민간단체에 직접 연락
	월드프렌즈 NGO해외봉사단	만 19세 이상	www.ngokcoc.or.kr(사업소개 코너)
	개발교육(동아리, 창체 연계)	초·중·고교	www.ngokcoc.or.kr
국제기구	UN 봉사단 :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 프로그램 실행	25세 이상	www.unv.org one.unv.org
	인턴십 : UN 및 국제기구에서 단기·장기 인턴 활동	석사학위, 관련 경력, 어학능력	unrecruit.mofat.go.kr
민간기업	윤리적 소비, 기업 설립 및 운영에 참여	누구나	개별 기업에 직접 연락
	단기 해외봉사단	대학생	개별 기업에 직접 연락

4단원 · 학생용 학습지

- ◆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활동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 그룹이 선택한 주요한 활동은 무엇이며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활동 예 : 홍보, 자원봉사, 마음과 관심, 후원 등)

- ◆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주체들이 있었나요?

- ◆ 4단원 '우리는 세계시민, 서로 도울 수 있어요'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또 활동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나요? 표현 카드를 활용해 봅시다.

4단원 · 학생용 선택 학습지

◆ 다음은 지구촌 이웃을 위한 직업을 갖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례 1] KOICA 해외봉사단 월드프렌즈 [탄자니아 단원 최은주]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최은주예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탄자니아의 병원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왔어요. 그곳 병원 분만실에서 산모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아기를 낳기 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병원에서 분만하지만, 이곳 탄자니아에서는 병원이나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분만을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모나 아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탄자니아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되었어요. 탄자니아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정말 아쉬웠답니다. 한국에서의 간호사 일도 즐겁지만, 나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어려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보람 됐어요. 저의 인생에서 탄자니아 활동은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여러분, 도전하세요!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출처 : 프라하 탄자니아에 빠지다, KOICA ODA 교육원

[사례 2] 개발NGO 팀엔팀 [국제협력팀장 임종진]

저는 현재 분쟁이나 재난 지역에서 긴급구호와 지역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단체 팀엔팀에서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수자원개발(상하수도 시설, 인공저수지 개발, 빗물 저장시설 개발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재난 지역의 수자원개발사업을 준비하는 데 제가 공부한 경영학 지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주로 한국 본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케냐, 수단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어서 사실을 알리고, 수자원이 개발되는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지요. 또 사업 내용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아프리카 현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평가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는 지역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보며 기뻐하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볼 때면 제가 정말 이 일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물을 통해 아이들은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지기도 하죠. 때로는 분쟁 지역에서의 활동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험천만한 그곳에서도 삶을 사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2013년 8월 인터뷰 실시

[사례 3]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총괄팀 [과장 서미영]

KOICA는 개발도상국이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직업교육, 교육환경 개선, 의료보건사업, 긴급구호, 전문기초청연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는 튀니지 KOICA 현지 주재원을 거쳐 지금은 한국해외봉사단 월드프렌즈코리아 기획 업무를 맡고 있어요. 대학 시절 정치외교학 공부를 하며 미혼모 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KOICA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2개월 동안 KOICA 인턴으로 활동했고,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졸업 후에 KOICA에 지원을 했고, 2005년 정식 직원이 되었지요. 저는 튀니지 KOICA 사무소에서 일을 하며 튀니지 시민들이 실업문제, 정부의 보이지 않는 통제 등을 스스로 타개하려는 노력의 모습(일명 '자스민 혁명')을 보면서 개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고민하여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를 함께 찾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글로벌한 사고를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통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같이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이 일을 정말 즐기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13년 8월 인터뷰 실시

[사례 4] 개발NGO 현장 활동가 [동티모르 YMCA 김두호]

저는 동티모르의 로뚜뚜에서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정무역 커피를 재배하여 파는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커피도 무역도 잘 몰랐어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했지요. 저는 주민들에게서 커피 재배 노하우를 전수받았고, 마을에서 공동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판로를 개척했어요.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되었죠. 동티모르 주민들과 함께 하며 느낀 점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배울 것이 많죠. 함께 하기 위해 배려하다 보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2013년 8월 인터뷰 실시

[사례 5] 국제기구 WHO [사무총장 고 이종욱]

WHO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에이즈와 말라리아, 소아마비와 같은 세계의 질병을 관리합니다. 이종욱 전 총장은 국제기구에 진출한 한국인 중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수장이 되신 분이예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1983년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에서 한센병 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WHO에 합류했습니다. 그 뒤 1994년부터 제네바 WHO 본부로 자리를 옮겨 예방백신사업국장, 세계아동백신운동사무국장, 백신국장, 결핵국장으로 일하셨어요. 1995년 WHO 백신국장 재직 당시에는 소아마비 유행률을 떨어뜨리는 성과를 올려 '백신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예방접종을 위해 큰 힘을 쏟았어요. 2003년 WHO의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고, 활발히 활동을 하던 중 2006년 5월 22일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출처 : EBS 지식채널-e "Man of Action" 내용 발췌

[사례 6] 사회적 기업 오오리 [대표 한영미]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회사’인 아시안 음식점 오오리(오가니제이션 요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오리의 셰프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에요. 함께 요리의 맛과 멋을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 식당을 운영하며 성장,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 회사입니다. 저는 ‘하자센터’에서 일하며 청소년, 이주여성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회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오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오오리 역시 처음에는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밥집이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일과 좋은 일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저는 돈 버는 일하면서도 좋은 일을 찾았고 제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참 기뻐요.

2013년 8월 인터뷰 실시

[사례 7] 민간단체 활동가 겸 예술가 [연극배우 레이]

안녕하세요? 전 레이라고 해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저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배우로서 무대에서 연극을 하고 때로는 대화의 방법으로 연극을 가르치기도 해요. 몇 년 전에는 미국의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동남아시아의 메콩 강 주변 사람들과 함께 연극을 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극을 통해 세상 밖에 이야기했고, 어린이의 권리와 빈곤 문제를 세상에 알리게 되었어요.

전 예술가지만, 지구촌의 빈곤과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예술은 사람의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면을 이끌어 내고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2013년 8월 인터뷰 실시

※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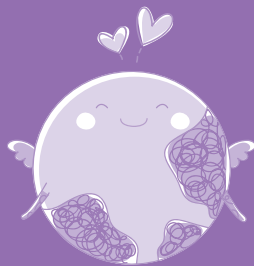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KOICA ODA 교육원, 2012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 교사용 교안, KCOC, 2010
담장 너머 지구촌 보기 실천시리즈, KCOC, 2012
빈곤에서 권력으로, 던컨 그린, 2010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 방법, 세종리더십개발원, 2001
참여형 학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코피온, 2012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04
PLA 기법에 따른 나눔교육 만들기, 아름다운 가게, 2012
EBS 지식채널-e
www.worldmapper.org



우리는 세계시민

부록

개발교육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





개발교육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

선택 활동

수업 시간을 늘려야 하거나, 내용을 심화시키고자 할 때 선택적으로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1) 완두콩 대왕 게임

언어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의사소통 게임

소요 시간	5분
준비물	1인당 완두콩 5개(또는 바둑알, 동전, 완두콩 모양으로 자른 종이 등)
응용 방법	수업 시작에 앞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할 때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 단위	1단원

게임 방법

1. 모든 참가자들에게 완두콩 다섯 알을 지급한다. 이때 완두콩이 없으면 바둑알, 동전, 완두콩 모양으로 자른 종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벼운 음악을 틀어 주면 좋다. 모든 참석자는 자유로이 돌아다니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며 완두콩 대왕 게임을 진행한다.
3. 질문자는 상대방에게서 “네” 또는 “아니요”라는 응답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네”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벌칙으로 질문자에게 완두콩 1개를 주어야 한다.
4. 가장 많은 완두콩을 가진 참가자가 완두콩 대왕이 된다.
5. 많은 완두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고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을 중요시하도록 인 지시킨다. 만약 언성이 높아지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완두콩 3개를 진행자에게 반납하는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2) 인권 – 빈디 게임

차별과 고정관념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게임

※ 빈디 : 힌두교도 여자들이 이마 중앙에 찍거나 붙이는 장식용 점

소요 시간	5분
준비물	빨강, 노랑, 초록색 원 모양 스티커(색깔별로 참가자 수의 3분의 1만큼 준비)
응용 방법	인권을 주제로 하는 수업에서 차별과 고정관념에 대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며,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 단위	3단원

게임 방법

1. 참가자의 이마에 빨강, 노랑, 초록색의 빈디 스티커를 무작위로 붙여 준다. 이때 참가자가 자신의 이마에 붙은 빈디 스티커의 색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눈을 감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참가자의 빈디 색깔도 알려 주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2. 최소한 5명 이상의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취미, 좋아하는 음식 등을 물으며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이때 빈디가 빨간색이면 무조건 화를 내면서 질문과 답을 하고, 노란색이면 무뚝뚝하게, 초록색이면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3. 대화 시간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와 각 색깔별로 손을 들어 보도록 하여 자신의 빈디 색을 맞춰 보도록 한다.
4. 빈디 스티커를 떼어 자신이 생각한 색깔과 실제로 붙이고 있던 빈디의 색이 같은지 확인하게 한다. 이유도 모른 채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거나 무뚝뚝한 반응을 겪었던 빨간색과 노란색 빈디 참가자에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인터뷰를 한다.
5. 대부분은 기분이 나쁘거나 실제로 화가 났다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차별한 적은 없었는지, 그 차별의 이유가 외모나 선입견, 고정관념 때문은 아니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활동이다.

3) 세계시민 실천 활동 계획 세우기

지구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활동 계획하기

소요 시간	15분
준비물	세계시민 실천 카드, 전지, 매직
응용 방법	교육 마무리에 적합한 활동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활용 가능 단위	4단원

활동 방법

모둠 활동이 적절하다. 모둠별로 세계시민 실천 카드 중 가장 실천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선택된 카드를 실행하기 위한 WH 계획을 세운다. WH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다.

- When (언제)
- Where (어디서)
- Who (누가)
- What (무엇을)
- How (어떻게)
- Why (왜)



개발교육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왜 국제개발협력 교육이 필요한가요?

개발교육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이에 따라 지구촌이 공동체화 되는 과정과 그 결과를 이해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 시작된 국제개발협력은 이후 UN의 구호활동 및 다양한 인도주의적 활동과 서구 국가들의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원조, 그리고 국제시민사회의 빈곤퇴치 활동 등으로 그 행위자와 영역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국제개발협력은 인류가 상호교류를 시작한 때부터 그 틀을 갖추어 왔으며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국가 간 사람과 자원, 정보의 이동이 용이해지고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세계화의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전 세계 경제 변동과 정치적, 군사적 갈등, 다양한 문화 현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 해하고 참여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습자에게 지구촌의 빈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빈곤 문제는 지구촌 저편의 낯선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내 이웃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일정한 정도의 현물과 금전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제도, 의료보험제도 등의 복지제도를 통하여 의식주 및 교육, 보건, 의료 등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하루 생계비가 1.25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 빈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고 간단한 치료나 약이 없어 가족과 친지의 허무한 죽음을 겪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조차 가족의 한 끼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도, 더 물어 내일의 꿈도 포기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쟁과 내전, 자연재해 등 환경적 요인, 정부의 부정부패, 왜곡된 국제무역 구조 등 다양한 원인이 뒤엉켜 그 해결책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을 평면적으로 비교 할 수는 없지만 절대 빈곤의 무게와 심각성을 이해한다면 지구촌 빈곤 문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구촌의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와야 하나요?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빈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그 사회 전체의 부와 제도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노력은 해당국의 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제도적 안정성,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정부가 효율적 혹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도태된 경우 국제기구나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였으나 정부와 지역 사회,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재단 등 다양한 층위에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가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의 사람들은 다른 국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지역에서 살고 있으나,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외부의 작은 손길은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는 국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시에 지구촌 빈곤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밥을 굶지 않도록 도와면 되는 거지, 인권까지 지켜 줘야 하나요?

먹고 사는 것도 인권입니다. 의식주는 인권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먹고 살도록 돕는 것 자체가 인권을 지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오늘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자립하여 빈곤의 고리를 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원하는 바를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이러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권까지'가 아니라 인권이 지켜져야 빈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록 · [1단원] 원인과 결과 카드

기아

매년 4천~6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로 사망

사막화

매년 남한 땅 크기의 목초지가 과도한 방목으로 사막화

소

목초지의 풀과 함께 지구에서 생산되는 1/3을 먹어 치우는 소

지구 온난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경우 210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이 섭씨 0.8~3.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환경백서)

숲 파괴

1970년대 말 중앙아메리카의 2/3가 축산단지로 전환됨

식량 소비

1인분의 고기와 우유 한 잔을 얻으려면 소에게 22인분의 곡식을 먹여야 함

해수면 상승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증가할 경우 2100년에는 해수면이 15~95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부록 · [3단원] 천사와 악마 역할 카드



빈곤국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권을 가진 동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야. 그들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해.



왜 꼭 우리나라가 빈곤국을 도와주어야 하지?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 우리가 꼭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나라도 50~60년 전에 해외의 도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도움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야. 나는 내 용돈도 부족하던 말이야. 나 살기도 바쁜데 꼭 도와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반면 해외 빈곤을 돕는 원조 금액은 그에 비해 부족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금 다른 나라의 빈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좀 더 커서 돈을 벌면 도울게.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나중에.



커피 한 잔이나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는 5,000원의 돈이 해외 빈곤국의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큰 돈이야. 작은 도움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게 어렵지? 세계시민으로서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난 내가 제일 소중한.

난 세계시민이고 지구촌이고 관심 없어. 공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나의 목표야.



여러분의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여러분의 악마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부록 · [단원 공통] 표현 카드

기쁨

기쁜, 기분 좋은,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감사한, 고마운, 고무적인, 낙천적인, 날아갈 듯한, 놀라운, 눈물겨운, 따스한, 든든한, 만족스러운, 멋진, 명랑한, 몽클한, 반가운, 벅찬, 뿌듯한, 사랑스러운, 살맛 나는, 상큼한, 신나는, 싱그러운, 자랑스러운, 자신 있는, 정다운, 정열적인, 좋은, 짜릿한, 쾌적한, 통쾌한, 편안한, 포근한, 푸근한, 행복한, 환상적인, 황홀한, 후련한, 흥기분한, 흐뭇한, 흔쾌한, 흥분된

즐거움

가벼운, 기쁜한, 경쾌한, 고요한, 기분 좋은, 담담한, 명랑한, 밝은, 산뜻한, 상쾌한, 상큼한, 신나는, 유쾌한, 당당한, 즐거운, 쾌활한, 편안한, 흥기분한, 확신 있는, 활기 있는, 활발한, 흐뭇한, 흥분된, 희망찬

사랑

감미로운, 감사하는, 그리운, 다정한, 따사로운, 묘한, 뿌듯한, 사랑스러운, 상냥한, 순수한, 애뜻한, 열렬한, 열망하는, 친숙한, 포근한, 호감이 가는, 화끈거리는, 흠족한

기대

간절한, 갈망하는, 기대하는, 바라는, 소망하는, 애꿎은, 절박한, 초라한, 초조한, 호기심이 있는, 후회스러운, 희망하는

슬픔

가슴 아픈, 걱정되는, 고단한, 고민스러운, 괴로운, 권태로운, 근심되는, 기분 나쁜, 두려운, 불쌍한, 불편한, 서글픈, 슬픈, 실망스러운, 애잔한, 염려하는, 우울한, 절망적인, 창피한, 처량한, 죄책감이 드는, 후회스러운, 희망이 없는

노여움

가혹한, 골치 아픈, 괴씸한, 기가 막힌, 기만당하는, 기분 상하는, 꼴사나운, 꿰어오르는, 나쁜, 노한, 똘은, 모욕적인, 무시당하는, 배반감을 느끼는, 복수심을 느끼는, 북받친, 분개한, 분노하는, 분통터지는, 불만스러운, 불쾌한, 속상한, 수치스러운, 숨 막히는, 실망한, 쓰라린, 약 오르는, 원망스러운, 짜증나는, 질투심 나는, 참을 수 없는, 화난

두려움

걱정스러운, 겁이 나는, 궁지에 몰린, 기가 죽은, 두려운, 떠밀린 듯한, 무서운, 불안한, 소심한, 실망한, 절망적인, 주저하는, 초조한, 패배한, 섬뜩한, 소름 끼치는, 근심스러운

미움

고통스러운, 괴로운, 구역질 나는, 귀찮은, 끔찍한, 몸서리치는, 무정한, 미운, 부담스러운, 서운한, 싫은, 싫증나는, 쌀쌀한, 야속한, 알미운, 억울한, 원망스러운, 증오스러운, 지겨운, 짜증스러운

홍보/PR

비디오, 오디오, 사진을 활용해서 우리의 의견을 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모금/기증

우리의 생활에서 절약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 보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 : 헌 물건 기증, 베희시장 수익금 모금 등)

후원

기금을 모금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공연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 노래 공연, 연극, 춤 등)

편지 쓰기

우리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예 : 여론조사, 탄원서, 기관 방문 등)

미디어 활용

언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출연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을 통해 전달합니다.

캠페인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과 그룹을 찾는 캠페인을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토론회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유명인을 초청하여 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 내에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자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대가 없이 우리의 재능과 힘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을 위한 배움
우리는 세계시민